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권 제1호 pp. 11~13

농촌지도사업의 현황과 과제

고 일 웅

제주도 농촌진흥원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Yil Woong Ko

Cheju Provinci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mmary

This study surveys recent development in the service in Korea agricultural extension, including organization, human resource, budgeting, major works. The study, then, reviews the direction of new agricultural policy and the problems in extension service to present the optimal reform for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Ⅰ. 농촌지도사업의 회고

1. 근대적 농촌지도사업 제도의 출발

미국은 1914년 스미스레버법을 제정하여 농촌지도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 법에 의하여 각 주립대학은 그 주요 기능의 하나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보조를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받게 되었고, 군 단위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할 농촌지도요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명치유신후 1870년대 전반부터 현 농업시험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시험장 중심의 연구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의 교육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

1947년 미국식 농사교도사업 도입후 점차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1957년 농사교도사업법 제정으로 지도사업이 제도화되었으며, 1962년 농촌진흥법 제정으로 현 체제 정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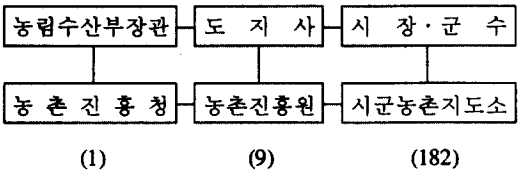
3. 회고와 반성

60년대는 주먹구구식의 영농을 탈피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의식 개발이 목적이었으며, 70년대에는 녹색혁명을 통한 주곡의 자급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80년대에는 백색혁명을 통한 비닐농법 확산으로 원예작물 생산이 확대되었다. 90년대는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영농은 농업 증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경영관리 능력의 향상에는 소홀하였으며, 농가의 복리증진보다는 국가목적을 실현하는데 충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Ⅱ. 농촌지도사업의 현황

1. 기구체계



※ 1957년 농사원 시대에는 일원화 되었으나 1962년 농촌진흥청 발족시 지원감독이 이원화.

2. 인력 및 예산

농촌지도인력은 총 6,974명으로 중앙의 농촌진흥청에 105명, 도 단위에 289명, 시군 단위에 6,5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4 예산은 총 3,570억원으로 인건비 1,497억원, 사업비 2,073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비 1,479억원(인건비 1,272억원, 사업비 207억원), 사업비 2,091억원(인건비 225억원, 사업비 1,86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일선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인사권, 사업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반면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4. 주요사업

가. 수도작, 전작, 축산, 경제작물등에 대한 신품종 보급과 재배기술 향상 등으로 저비용, 고품질, 고부가가치 생산 기술지도.

나. 농업인력 육성과 교육 및 농가 생활의 질 향상 지도.

라. 농업경영 및 유통개선에 관한 농가지도 등.

Ⅲ. 농정의 방향과 농촌지도사업의 과제

1. 농정의 목표와 방향

농정의 목표는 첫째,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술농수산업의 육성, 둘째,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셋째, 풍요로운 농업, 생활공간으로의 농어촌정비이며, 이를 통한 농업구조개선의 조기실현과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농정의 기본 방향으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첫째, 농지제도, 양곡관리제도, 인력개발과 연구개발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둘째, 쌀 자급기반 유지와 생산비 절감 그리고 축산, 원예의 전업농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의 구조 개선, 세째, 생산자 주도의 시장유통혁신을 위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지원 육성과 시장 유통기능 강화와 생산자 위주의 가공사업 육성 네째, 생산 기반과 연계된 정주생활 공간정비, 농외 소득원 개발과 농어촌 복지제도의 실시를 통한 농어촌 종합 정비와 복지기반 확충, 마지막으로 수출기반 조성과 수입 농수산물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농수산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2. 현행 농촌지도사업 방향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 보급, 첨단기술의 이용 확대,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강화 그리고 농가 소득원 개발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농업 부가가치 개발 기술의 확대 보급, 농외 취업 알선 지도와 농업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계 농업인력의 육성과 농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며 전문교육기관 설치 운영, 또 후생복지 측면에서 생활환경의 개선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민건강 증진,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환경 보존 측면에서 자연 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중점을 둔 지역특산 작목(품) 개발과 소득화, 환경 보전적 농업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3. 밖으로 비친 농촌지도소의 모습과 기대

전반적으로 지도사의 사기가 저하되어,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지도사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성을 키우는 인사 제도와 정예화 방안이 필요하다. 지도사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으며, 보다 민주적, 개방적, 합리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도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며 너무 지방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의 종합설계사무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지도소는 국민식품의 안정적 생산을 책임지는 기관이며, 농촌지도소가 생산조절 기능을 맡아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과잉생산 또는 과소생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소간 생산유통정보를 교환해서 지도해 주어야 한다.

선도농가, 지도소, 농협 삼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 농업을 개발함으로서, 선도농가를 핵으로 주산지를 조성하고 첨단기술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4.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적 과제

가. 지도기능의 확대

농산업 관련 종사자의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켜, 원료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저장, 유통, 소비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식품의 안정생산 기반 구축과 농산업 관련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생활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연구사업의 보강 및 지도사 재배분과 교육이 필요하다.

나. 지역농업개발 센타의 보강

개방화에 부응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로서 농산가공 종합연구실을 도당 1~3개소 추가 설치하여 가공사업체와 공동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다. 농산업 관련 정보체계의 확립

데이타 베이스화를 촉진하여 생산기술, 가공, 저장기술, 시장유통정보 그리고 농촌 생활기술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주산단지 생산·유통정보를 체계화 할 수 있다.

라. 품목별 생산자 조직(조합) 중점 육성

공정육묘 시스템 도입, 감자 무병종서 증식, 백합 무병종구 증식 등 협력이 필요하며, 정보교환, 선진기술 도입, 공동출하 체계 확립 등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마. 농민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

영농체계 연구와 지도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농민 + 연구진 + 지도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또 농촌지도사업 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에 농민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즉 연구사업도, 지도사업도 농민의 평가가 가장 의미있는 것이다.

바. 지도사 자질 향상과 전문화

변화하는 농업에 적응하고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적인 농촌지도사의 자질은 단순히 농업 전문기술자로서의 역할 뿐만아니라 planner(계획자), Organizer(조직자), Coodinator(조장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Ⅳ. 결 론

현행 지도체계는 국제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 변동에 부적응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지도사와 농민들의 욕구 수용에 미흡하며, 지도사업 원리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방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관」「경쟁력을 키우는 기관」이 되어 농민과 유관기관 단체로 부터 환영받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